

조업 중 선원 다치면 선장 책임

상해 고의 없어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송치 해경, 외국인 선원 안전 작업·노동인권 보장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이 작업도중 부상을 입자 해경이 선장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43분께 전북 군산시 북방파제 서쪽 약 22km 해상에서 29급 어선에서 발생한 선원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선장 김씨(56)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어선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원 A씨(35, 베트남)가 자청해 "잠수한 뒤 로프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고 선장이 이를 허락하면서 발생했다.

선원 A씨는 잠수장비 없이 산업용 공기주입기에 호흡용 압력 조절기(regulator)만을 이용해 바다에서 작업하다 정체가 되지 않은 공기를 흡입했고

순간적으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쇼크 상태에 빠졌다.

선원 A씨는 사고소식을 듣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폐렴과 패혈성 쇼크 등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선장은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조업작업은 물론 선원안전까지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선원이 스스로 원했는지 선장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를 떠나 해상에서 선원이 부상을 입었다면 선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다.

해경은 증가하는 외국인선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노동인권 보장을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이 작업도중 부상을 입자 해경이 선장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사진은 해경이 사고 당시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있다.

위해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이 예측될 상황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없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관내 선주와 선장 등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장현기자

관광객 사로잡을 맛집 선정

익산시, 다미 등 20개 업소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제99회 전국체전 개최 도시로서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익산의 대표 맛 집 20개소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맛 집 신청업소를 접수 받아 심의위원회와 임직원 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음식 맛은 물론 위생, 친절, 서비스 등 전반적인 항목을 평가해 최종 맛 집을 선정하게 됐다.

익산의 대표 맛 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다미, ▲다올한우전문점, ▲포포오리, ▲뚜부부카페, ▲모성, ▲물머리집, ▲백계가든, ▲백탄갈비, ▲본향, ▲부송국수(본점), ▲영빈화관, ▲유연자꽃게장, ▲이정숙꽃게장굴비랑, ▲익산천혜우, ▲인동숙마을, ▲전주

소바, ▲초향정, ▲한일식당, ▲해우림(본점), ▲훈가든허브오리 등 20개 업소이며, 맛 집 인증기간은 1년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맛 집 인증 표지판이 부착되고, 시 홈페이지 게재, 주요 관광지 등 다중집합장소에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혜택과 친절·위생 등의 영업자 교육과 자문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자격 기준이 미달될 때에는 맛 집 인증을 취소하는 등 위생, 서비스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문화를 향상시켜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익산 맛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맛 집으로 선정된 음식점은 물론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음식점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나운2동 주민 응급처치 교육 실시

군산시 나운2동(동장 송천규)은 지난 4일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과 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군산소방서와 연계하여 기습입박 및 인공호흡 병행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긴급 상황에 골든타임 확보 등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교육을 받은 한 주민은 "홍부압박,

인공호흡 등의 실습 교육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러한 생명과 관련된 안전 교육들이 자주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운2동 송천규 동장은 "군산소방서와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관곤 기자

농식품 안전, 중국서 배우다

원광대 재학생, 연변대 글로벌 스터디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안심안전 농·식품 특성화사업단은 중국 연변대와 공동운영 중인 북방농업 연구소를 방문하고, 연변대학 실습 농지에서 글로벌 스터디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매년 방학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원예산업학과 및 생물환경화학과 재학생 13명을 선발해 최근 중자 생산과정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키우고, 육종 및 채종도 관리 등을 체험했다.

또한, 연변대 농학원에서 주관한

특강을 통해 북방농업연구소 현황을 알아보고, 중자 산업의 규모, 관광작물 재배 현황에 대한 학과와 함께 연변대 농학원 학생회와 양교 학생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이론으로 배운 것을 현지에서 직접 실습하면서 생각보다 깊이 있는 체험학습을 한 것 같아 의미가 있었다"며, "날씨가 덥고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원광대 안심안전 농·식품



원광대학교가 원예산업학과 및 생물환경화학과 재학생 13명을 선발해 최근 중자 생산과정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키우고, 육종 및 채종도 관리 등을 체험했다.

특성화사업단은 지속적인 글로벌 스터디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맞는 소양을 함양하고, 스터디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늘푸른학교 청소년 보조교사 40명 임명장 수여

군산시는 지난 4일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 멘티와 더불어 공부하기' 프로젝트에 청소년 문해교육 보조교사로 모집된 40명에게 보조교사 임명장을 수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세대공감커뮤니티 '청소년 멘티와 더불어 공부하기 프로젝트' 사업은 1·3세대 간의 소통 형성과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군산시늘푸른학교 어르신 문해학습자들에게 받아쓰기, 셈하기, 핸드폰 문자 보내기 등의 문해학습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모집된 청소년들은 총 74명으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22개소의 문해학습장에서 디지털 문해교육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디지털 문해교육 즉, 스마트폰 및 2G폰으로 문자 보내기, 글자 입력하기, 영상 제작, 밴드 활용 등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청소년 보조교사들과 디지털 문해교육 활동가 그리고 문해교육사들

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디지털 문해교육이 진행되는 2주간의 기간은 더 의미 있고 교육의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대성 인재양성과장은 "청소년과 문해학습자들 상호 간의 Win-Win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통문화로 최초 실시하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더함으로 교육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되고 군산시 문해교육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장현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노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 만전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송현섭)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노인층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관내 노인정,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준법정신 준수를 강조하고 중요 개소에 "무단횡단은 가족과 작별하는 지름길"이라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차량통행이 많고, 노약자 통행이 많은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직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이 담긴 전단지들을 배부했다.

중앙지구대는 "교통사고에서 가장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은 대상으로 지



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경찰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